

김남훈

변호사

민법·민소법

Test

진도별 모의고사+강의

일 정

민법·민소법 진도별 모강(월~금)

2015. 8/10(월) ~ 9/11(금), 총 25 회, 월~금, 오전

**시험** 오전 8시~9시 30분 **강의** 오전 9시 45분~12시 45분

민사법 기록형 진도별 모강(토)

2015. 8/15(토), 22, 29, 9/5, 12, 19, 총 6회, 매주 토, 오전

**시험** 오전 8시~11시 **강의** 오전 11시 15분~12시 45분

민사법 기록형 민사소송실무특강(토) (서인겸 교수님 제)

2015. 8/15(토), 22, 29, 9/5, 12, 19, 총 6회, 매주 토, 오후

**강의** 오후 2시~5시 30분

교 재

- 민법·민소법 통합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해설지에 전문항 수록) (제공)
- FOUETTE 로스쿨 민사법 종합사례연습(저자, 제공)
- FOUETTE 사법연수원 민사법 사례연구(저자, 제공)

수 강 특 전

- 진도별 모의고사 전과목(민법+민소법, 상법, 기록형) 실강수강생을 위한 특전
- 1. 민사법기록형 민사소송실무특강(서인겸 교수님) 강의 무료수강
- 2. 2015 상반기 판례정리(8.9 공개강의) 교재 무료제공
- 3. 2015 협의회 모의시험 기록형 해설특강(일정 추후공지) 강의 무료수강

#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

정확한 판례법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쟁점의 실전적 연습

1:1 대면첨삭을 통한 과외식 답안첨삭지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최소한의 실무과목에 대한 이해와 적용연습

진모 문제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수준의 엄선된 지문과 사례

## 출 제 경 향 및 학 습 방 법

### Ⅰ. 출제경향의 분석 및 제5회 시험에 대한 예상과 학습방법

- 지금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협의회 모의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전 영역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쟁점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얼마나 빨리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i) 선택형은 설문이 긴 사례형 및 계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서 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추었고,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 (ii) 사례형은 10점에서 50점 배점의 문제가 평균 20문항 내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민법과 민소법의 쟁점은 매년 새로운 판례를 묻는 형식으로 하여 반복하여 출제가 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의 신청 및 취소 등 민사집행법의 중요 쟁점을 묻는 설문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매년 몇 문제는 사법연수원 사례연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 한편 판례가 없어서 조문과 이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즉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방식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합니다.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의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기출문제]**

A는 2010. 3. 10. B에게 A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0.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B는 2010. 3. 10. A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B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2010. 5. 20.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명의로 채권액 6,0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2. 3. 9.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경우 C는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25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0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 위 문제는 제시된 두 판례를 근거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판례의 법리를 쓰면 되는 문제에 배점이 25점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면, 실무적인 판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고득점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 (iii) 기록형은 실문가들만이 출제하고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과목의 특성상 당연히 출제방식과 출제장점 모두 사법연수원의 민사실무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청구원인과 답변서에 정리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난이도 면에서도 변별력을 갖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선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시험에서는 ‘전단적 대표행위’가, 제3회 시험에서는 ‘영업양도’가 출제되었으므로 기록형 문제에서도 회사법의 쟁점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

- 기록형에 대한 대비로는 정선된 기록문제를 사실관계를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쟁 유형별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연습은 2014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문제 15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6회분 + 서인검 교수님 저서의 12문제 + 2015년 협의회 모의시험 3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각 영역의 공통된 출제경향을 정리해보면 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실무적인 통합형 쟁점의 출제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민법과 민소법이 중첩되는 쟁점과 사법연수원 민사실무의 중요 쟁점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제5회 시험은 민법과 민소법의 전통적인 중요 쟁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사법연수원 민사실무기록과 유사한 방식의 통합적 형태의 설문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 난이도 또한 최소한 현재의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에 따라 수험생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것과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험생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로 인하여 내년에는 이러한 수준의 상승폭이 예년에 비하여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격선도 상당히 높은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제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 위주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안지에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상급 난이도’로 출제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범한 기본적 난이도의 문제 보다는 ‘상급 난이도’의 문제에서 수험생 사이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이에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
**문 제 구 성  
및  
강 의 방 향**

- 이처럼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무과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재판실무 등과 같은 실무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시간상 이러한 실무과목에 대한 전반적이 학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각 과목별 중요 쟁점 위주로, 즉 사법연수원 민사실무기록에 출제된 실무적인 쟁점에 대하여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은 통합형으로 출제되므로 사법연수원의 강의내용이 출제기준이 되고, 사법연수원 교수진을 포함한 실무가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이 분량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II. 진도별 모의고사의 문제구성 및 강의 방향****1. 선택형 모의고사 (15문제)**

- 지금까지 선택형 기출해설특강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시험과 법무부 모의시험 및 협의회 모의시험의 모든 지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풀어보고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에 대한 출제경향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시험의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모든 선택형 문제를 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1000문제 이상의 5000 지문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 위주로 정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에 출제가 되었지만 변호사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판례까지 포함하여, 별도의 선택형 문제풀이가 필요하지 않도록 출제하였습니다.
- 또한 2015년 상반기의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 판례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중요한 판례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문제에 반영하거나,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최근의 판례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선택형 15문제는 민법이 10문제, 민소법이 5문제의 비율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통합형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법, 민소법 문제보다는 대부분의 문제가 통합형 지문이 포함된 문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전 시험보다는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여 충분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과목에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선택형 문제의 모든 지문을 제가 직접 검토하고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지문의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제의 양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정선된 문제이므로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2. 사례형 모의고사 (100점)****가. 문제 출제의 기준 및 근거**

-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만으로 사례형으로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민법과 민소법을 25회 분량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매회 민법과 민소법 각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협의회 모의고사에 출제된 쟁점과 각종 교수사례집의 중요 쟁점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 또한 사법연수원 민사실무기록을 사례형으로 변형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재에 있는 중요 판례 및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였습니다. 작년 사법시험 민사소송법에서는 추심명령과 중복소송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공식적인 시험범위가 아닌 사법시험에서도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출제경향은 변호사시험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물론 이미 제1회 시험부터 선택형에서는 실무과목의 중요 판례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이제는 사례형 시험에서도 실무과목의 중요 쟁점이 전면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재판실무에서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만들어 출제 하였습니다.

**나. FOUETTE 민사법 종합사례연습에 대한 해설**

- ‘FOUETTE 민사법 종합사례연습’ 교재에는 위 ‘문제 출제의 기준 및 근거’에서 서술된 내용과 동일한 기준에서 구성되고, 진도별 모의고사와 대학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검증된 출제예상문제가 30문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 교재에 수록된 문제 또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회 일정으로 매일 2문제에 대한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매회별로 2문제씩 연습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다. FOUETTE 사법연수원 민사법 사례연구에 대한 해설**

- ‘FOUETTE 사법연수원 민사법 사례연구’ 교재는 10년간 사법연수원의 민사법 자료와 강의 내용 및 4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 자료와 강의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법연수원 공식 자료를 단순히 복제한 자료가 아니고,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SAMPLE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매년 4 ~ 5문제 정도가 동일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는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이 ‘고득점 합격’을 결정하는 문제로 다수 출제될 것입니다. 기존 수험서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FOUETTE 민사법 종합사례연습’에 대한 강의가 끝난 후인 16회부터 25회까지 본 교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2015년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 FOUETTE 민사법 종합사례연습 + FOUETTE 사법연수원 민사법 사례연구만으로 완벽한 사례 문제의 단권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사례 문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SAMPLE(1) 위 교재에 수록된 사법연수원 사례문제]****〈공통된 사실관계〉**

A는 1995. 8. 5. 블루베리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B로부터 광주시 실춘읍 산이리 산 23 임야 482,9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A는 2000. 4. 5.경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여 가꾸어 왔다. A는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B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보다 시가가 3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더 주지 아니하면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A는 B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2001. 4. 9.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30억 원에 매도하였다. C는 A의 뒤를 이어 이 사건 임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다가, 2007. 12. 4. 이 사건 임야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50억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와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 B에 대하여는 1995.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A에 대하여는 2001.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소장부분은 2009. 5. 25. A와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추가된 사실관계〉**

원고가 2008. 9.경 C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경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설문]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 위 사법연수원 사례문제와 동일]**
**< 기초적 사실관계 >**

B는 2002. 1. 1.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C로부터 X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B가 요구하는 때에 마쳐주기로 하였다. B는 2002. 4. 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C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았다. B는 그 무렵 이후 C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C는 X토지를 매도할 당시보다 시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하였다. B는 C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2009. 12. 4. A에게 X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 >**

A는 2011. 5. 8. 법원에 C를 상대로 B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 >**

재판과정에서, A가 2010. 9. 10. B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0.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점)



**[SAMPLE(2) 위 교재에 수록된 사법연수원 사례문제]****〈공통된 사실관계〉**

1. 원고는 2009. 5. 1. 피고甲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4.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甲은 위 돈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커피전문점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2010. 7.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甲은 위 커피전문점의 운영이 어려워 권리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2010. 7. 1. 형인 피고乙과 통정하여 허위로 피고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7. 1. 접수 제3456호), 피고乙은 같은 해 9. 9. 친구인 피고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같은 법원 2010. 9. 9. 접수 제5544호).
3.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난 직후인 2010. 5. 7.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는데, 같은 해 8. 8. 피고甲이 피고乙에게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甲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같은 해 9. 20. 피고甲에게는 위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추가된 사실관계〉**

위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가 2011. 8. 11.에 피고乙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10. 20.에 전득자인 피고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설문] 원고의 전득자 피고丙에 대한 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가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에 대하여 설명하라.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4 : 위 사법연수원 사례문제와 동일]****〈 사실관계 〉**

○ 甲은 2005. 1. 4.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3.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07. 11. 26. A의 유일한 재산인 X건물에 관하여 2007.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의 여동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12. 11. B를 권리자로 하여 2007. 12.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2008. 6. 2. B를 상대로, A와 B 사이에 체결된 2007. 4. 10.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X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30.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2009. 1. 20. 확정되었다. 위 2007. 4. 10.자 매매는 A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하고, B와 B도 위 2007. 4. 10.자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甲은 2008. 5. 25.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 문제 〉**

甲이 원상 회복의 차원에서 2009. 10. 30.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20점)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3. 기록형 모의고사 (1문제)**

- 현재까지 모의시험을 포함한 모든 기록형 문제는 사법연수원 민사실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  
다. 올해도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민사법을 강의한 유일한  
강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가장 최근의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까지 포함하여 실전용 문제를 구성  
하였습니다.
- 한편 기록형에서도 상법의 쟁점까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쟁점까지 포함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어음법의 쟁점이 포함된 사법연수원 기  
록을 참조하여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4. 주말 민사법기록형 민사실무특강(서인겸 교수님) 강의**

- 본 강의는 서인겸 교수님의 교재인 ‘민사법 기록형 민사실무특강’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총 12  
문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회 2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모의시험의 기록형에 대한 해설 강의는 추후 공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대 면 첨 삭****Ⅲ. 대면첨삭을 통한 개인별 취약점 보완**

- 강의는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매회 진모 사례형 문제풀이 ⇨ FOUETTE 문제  
풀이 ⇨ 진모 선택형 문제 풀이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2주차부터 개인별로 시간을 정하  
여 1 : 1 대면첨삭시간, 즉 과외식 답안첨삭시간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채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무가의 시각에서 필요한 답안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에 부합하도록 자신  
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당부의말씀****V. 진도별 모의고사 수강생 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 진도별 모의고사는 참여자가 가장 많은 강의이나 중도 탈락자 또한 가장 많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험에 응시하면서 강의를 수강하고 꾸준히 따라오는 수강생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강의  
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매일 치열하게 연습하고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는,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  
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 10년 전인 2005년 10월 어느 날, 오랜 수험생활 끝에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  
니다. 합격 소식을 알려드리는 전화 수화기 속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반가운 목소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오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랜 수험 생활 속에서도 한 순간도 합격  
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합격에  
대한 의지와 확신만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김남훈 변호사를 믿고 노력할 분들만 기다리겠습니다.

#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

##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민법	민사소송법
1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서론</li> <li>○ 권리의 주체</li> <li>○ 권리의 객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소송과 신의칙</li> <li>○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li> <li>○ 민사재판권</li> <li>○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li> <li>○ 법관의 제척·기피·회피</li> </ul>
2	8/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행위</li> <li>○ 의사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분관할</li> <li>○ 사무관할</li> <li>○ 토지관할</li> <li>○ 합의관할</li> <li>○ 변론관할</li> <li>○ 소송의 이송</li> </ul>
3	8/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의 확정</li> <li>○ 당사자표시의 정정</li> <li>○ 성명모용소송</li> <li>○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li> </ul>
4	8/1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효와 취소</li> <li>○ 법률행위의 부관</li> <li>○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능력</li> <li>○ 당사자적격</li> <li>○ 소송능력</li> <li>○ 변론능력</li> </ul>
5	8/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시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상의 대리인</li> <li>○ 소의 의의와 종류</li> <li>○ 소송요건(소의 이익)</li> </ul>
6	8/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건법 서론</li> <li>○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li> <li>○ 법률규정에 의한 물건변동</li> <li>○ 부동산등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물</li> <li>○ 소의 제기</li> <li>○ 재판장의 소장심사</li> </ul>
7	8/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산물권변동</li> <li>○ 물권의 소멸</li> <li>○ 점유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제기의 효과</li> <li>○ 처분권주의</li> <li>○ 변론주의</li> </ul>
8	8/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시효</li> <li>○ 첨부</li> <li>○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청구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시제출주의</li> <li>○ 집중심리주의</li> <li>○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li> <li>○ 변론의 준비</li> <li>○ 변론의 내용</li> </ul>

#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

회 차	일 정	민법	민사소송법
9	8/20(목)	○ 공동소유 ○ 명의신탁	○ 변론의 실시 ○ 기일의 해태 ○ 기일, 기간, 송달
10	8/21(금)	○ 지상권 ○ 전세권	○ 소송절차의 정지 ○ 증명의 대상 ○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의 개시
11	8/24(월)	○ 유치권 ○ 질권	○ 증거조사의 실시 ○ 자유심증주의 ○ 증명책임
12	8/25(화)	○ 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 소송종료선언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과 인낙
13	8/26(수)	○ 채권의 목적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 재판상 화해 ○ 판결의 종류(중간판결과 종국판결) ○ 판결의 효력(기판력 제외)
14	8/27(목)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 기판력
15	8/28(금)	○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취소소송	○ 판결의 무효 ○ 판결의 편취 ○ 소송비용의 재판 ○ 가집행의 선고
16	8/31(월)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청구의 병합
17	9/1(화)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청구의 변경
18	9/2(수)	○ 채권의 소멸	○ 중간확인의 소 ○ 반소
19	9/3(목)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통상의 공동소송
20	9/4(금)	○ 증여 ○ 매매 ○ 교환	○ 필수적 공동소송

# 민법 · 민소법 진도별 모강 Test

회 차	일 정	민법	민사소송법
21	9/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대차</li> <li>○ 사용대차</li> <li>○ 임대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li> <li>○ 추가적 공동소송</li> <li>○ 선정당사자</li> </ul>
22	9/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li> <li>○ 현상광고</li> <li>○ 위임</li> <li>○ 임치</li> <li>○ 조합</li> <li>○ 화해</li> <li>○ 사무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참가</li> <li>○ 공동소송적 보조참가</li> </ul>
23	9/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이득</li> <li>○ 불법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당사자참가</li> <li>○ 공동소송참가</li> </ul>
24	9/1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족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li> <li>○ 소송승계</li> </ul>
25	9/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소심절차</li> <li>○ 재심</li> <li>○ 간이소송절차</li> </ul>

※ 선택형과 사례형은 통합형 문제의 특성상 진도 외의 쟁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도는 계속 누적됩니다. 기록형은 시험의 특성상 별도의 진도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